

## 러시아 은행,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순수신용 Syndicated loan 도입

- 자산규모기준 러시아내 상위 10위 이내 은행인 MDM Bank와 Alfa Bank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1년 11월말 및 12월 초 외국은행으로부터 순수 신용조건부, 금리 Libor+4.15%, Libor+3.75% 조건으로 6개월 간 각각 US\$13백만, US\$20백만의 Syndicated loan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비록, 적은 금액이고 신디케이션에 참여한 Donaubank AG, Russian Commercial Bank Ltd(Zurich), Baden-Wurrtem-bergische Bank AG 등 3개 은행 중 앞의 2개 은행이 러시아 국영은행으로서 동국내 2위 은행인 Vneshtorgbank의 해외 자회사라는 점에서 외국자본 도입의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는 있으나, 순수 신용조건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점차 변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낳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희망에도 불구하고 Vneshtorgbank의 해외 자회사와 함께 1개 외국은행만이 신디케이션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Syndicated loan 제공과 관련한 외국인들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관망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번 Syndicated loan의 순조로운 종결 여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장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향후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름하게 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임

- 
- 아울러 향후 러시아은행에 대해 외국인의 Syndicated loan 제공이 본격화되더라도 당분간은 러시아은행의 해외자회사나 과거 외환위기 이전 러시아에서의 영업경험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